

오피스·물류 거래 주도로 연간 최고치 투자 규모 경신

▼ 0.3% Q-O-Q
Q4 2025 GDP

▲ 0.62% Q-O-Q
Q4 2025 CPI INFLATION

▲ 71
Q4 2025 BSI

▲ 2.69%
Q4 2025 3M KORIBOR

▲ 4.3% Y-O-Y
Q4 2025 FDI

▼ 110
Q4 2025 CCSI

Note: 화살표는 이전 분기 대비 변화를 의미함

HOT Topics

- 마곡 권역은 신흥 업무지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원그로브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 항공·운송,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임차 수요가 유입되며 임대차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 인바운드 관광 수요는 리테일 시장의 핵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1월 누적 외국인 방문객은 1,740만 명을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2019년 대비 9% 높은 수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중국·일본 중심에서 대만·미국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며 리테일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대형 물류센터 개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임차인은 중심으로 중장기 물류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2025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며 차입금리와 수익률(Cap Rate) 간의 역마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그간 지연됐던 대규모 자산 매각, 선매입, 전략적 투자자 매수세를 촉진하며 거래 모멘텀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피스

2025년 4분기 명목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2.0% 상승했으며, 무상임대 기간이 소폭 확대됐음에도 실질 임대료는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A급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3.3%를 기록하며, 수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테일

뷰티·웰니스 리테일러의 확장에 힘입어 2025년 4분기 주요 가두상권의 공실은 강남·성수·한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됐으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임대료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물류

2025년 하반기 기준 서울 수도권 A급 상운 물류센터 임대료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인천은 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 둔화와 대형 공실 자산의 해소가 진행되며 연말 공실률은 17%로 집계됐고, 상운 및 저운 공실률은 각각 10%, 36%로 확인됐다.

투자

2025년 4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8조8,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누적 투자 규모는 33.7조원(+53% y-o-y)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피스

2025년 4분기 서울 3대 업무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3.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자연공실률을 하회하던 1%대의 저공실 구간을 지나, 2024년 2% 중반을 거쳐 점진적으로 수급 정상화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명목 임대료는 ㎡당 40,768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 상승하며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무상임대 기간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대료는 38,304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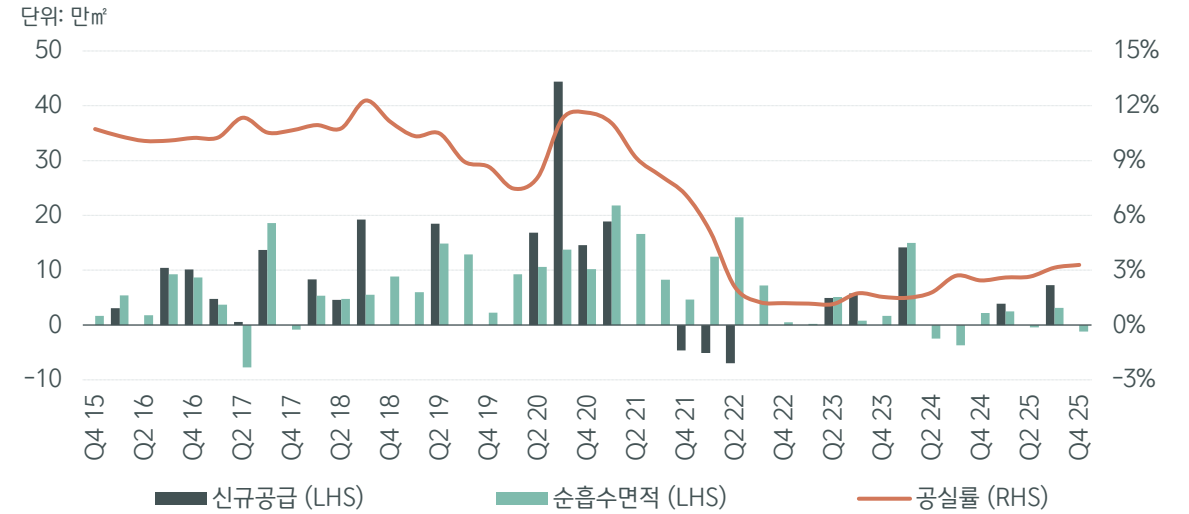
25년 4분기 신규 임대차 규모는 99,018㎡로 전 분기에 이어 보험세를 유지하면서, 25년 전체 규모는 작년에 이어 최저 수준(392,243㎡)을 기록했다. 주요 임대차 사례로는 한화오션(기존 그랜센트럴)이 대신343으로 이전을 확정했으며, 여의도에 소재한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협회빌딩 재건축에 따라 파크원타워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년 유일한 신규 공급이 존재했던 도심권역은 디타워 동의문에서 공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107의 수요 흡수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4.1%를 나타냈으나 세 권역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편, 타워107의 경우, 대기업 계열 제조업 및 금융 임차인을 적극 유치하며 준공 후 1년 만에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향후 대규모 공급이 집중된 도심권역은 2026년 3개의 A급 오피스 공급을 기점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의 공급 회복 전환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공급 회복 전망에 따라 그동안 이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임차인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향후 오피스 시장의 신규 임대차 활동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타워8의 팬오션은 이전 검토 끝에 최종 잔류를 선택했으나, 종로플레이스의 대상그룹과 센트럴폴리스의 SK텔레콤은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퍼니에퀴티파트너스에 매각된 SK렌터카의 경우 삼일빌딩을 떠나 기타권역으로의 이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강남과 여의도권역은 전년 대비 공실률이 소폭 하락하며 견고한 수요를 유지했다. 강남권역의 공실률은 마제스타시타워 내 임차인 이탈에 따라 전 분기 대비 0.7%p 상승한 2.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3대 업무 권역 중 가장 견조한 대기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테헤란로 소재 자산을 중심으로 IT, 금융, 제조업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임대형 자산의 공급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권역은 원센티널의 임차 안정화와 파크원, FKI타워 등 프라임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임대차 활동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3.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향후 2028년 공급 예정인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재건축 외에 임대형 자산의 신규 공급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의도 오피스 시장은 당분간 안정적인 임차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업무지구로 자리매김한 마곡권역은 원그로브를 중심으로 해외 금융사, 항공 운송,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며 활발한 임대차 활동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서브 권역 역할을 수행하던 성수권역의 경우 전반적인 수요는 다소 주춤한 양상이나 제조업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1: 서울 A급 오피스 수요 및 공급 동향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TABLE 1: 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동향

2025년 4분기	서울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
공실률 (%)	3.3	4.1	2.2	3.3
전분기 대비 (%p)	+0.2	+0.0	+0.7	-0.3
전년 대비 (%p)	+0.9	+2.2	-0.3	-0.2
실질임대료 (원/㎡/월)	38,304	37,811	43,814	33,463
전분기 대비 (%)	+1.8	+2.6	+2.4	+0.2
전년 대비 (%)	+6.3	+7.1	+8.0	+3.3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리테일

2025년 11월까지의 누적 국내 소매판매액은 597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상승했다. 2024년 말 정치적 이슈 및 항공기 사고 등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소비 활동에 따라, 2025년 4분기에는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백화점과 전문소매점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회복세가 관찰됐다. 이는 부진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2024년 대비 연간 성장을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하반기 들어 기준선(100)을 상회하며 110포인트 대를 기록하는 등, 201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요 심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경기 저성장 속에서도, 관광 수요는 서울 리테일 시장의 핵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1월 누적 외국인 방문객은 1,740만명을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9%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과거 중국 및 일본 방문객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데 반해 대만,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비중이 성장하며 수요의 다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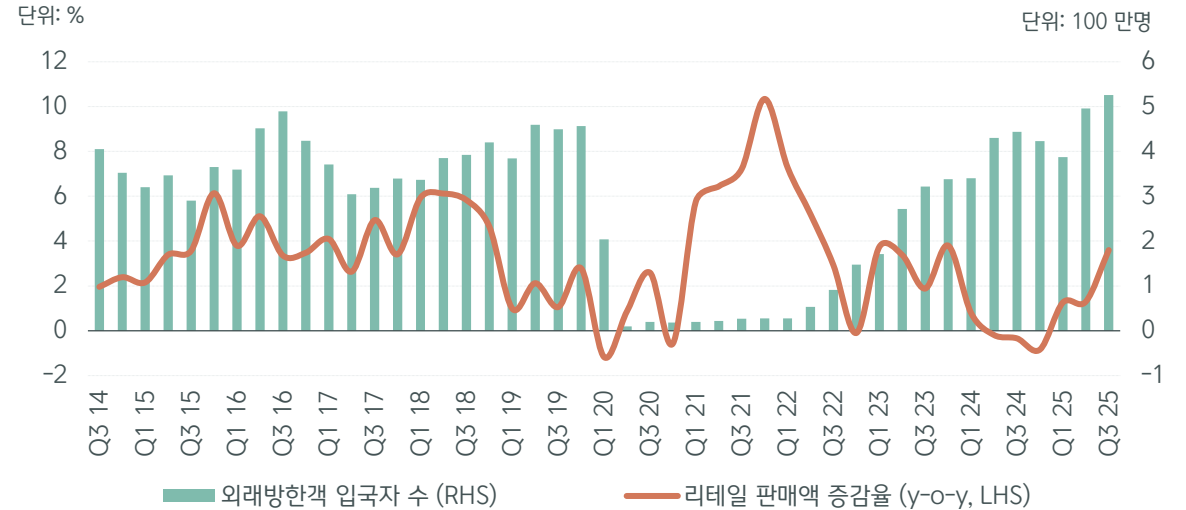
외국인 방문객 수요의 다변화는 소비 행태의 변화로도 이어지며 리테일러의 임대차 활동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방한 외국인의 과거 대비 1인당 총 지출액의 증가와 1회당 평균 지출액의 감소가 동시에 관찰되면서, 명품 중심의 '고가 단품' 소비에서 라이프스타일·뷰티·웰니스 중심의 실용형 '중저가 다품목'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35%), 약국(+67%), 건강식품(+75%) 등 뷰티·건강 제품에 대한 높은 소비 활동이 K-뷰티를 넘어선 K-의료관광 등 관련 리테일러의 확장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쇼핑 관광지로 회복을 마친 명동은 시코르와 같은 뷰티 업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지속되며 '뷰티·메디컬 중심' 상권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금번 분기에는 약국의 대형화 및 집적이 두드러지며 명동타운레디약국, 명동친한약국 등이 오픈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명동 권역의 신규 약국 개설 수는 8곳으로, 2024년 총 2곳 대비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100평 이상 대형 약국과 다층 형태의 운영 사례가 등장하는 등 점포 대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

더불어 금번 분기, 성수동 연무장길 인근에 메디큐브의 3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하는 등 주요 상권 내 뷰티 및 웰니스 카테고리의 확장세가 지속됐다. 특히, 올해 명동거리점, 센트럴강남타운점 등 연이어 가두상권에 추가 매장을 확장한 올리브영은 광화문 및 강남역에 세컨드 브랜드(올리브베러) 런칭을 예고했으며, 3040대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이너뷰티, 건강용품, 운동용품 등 웰니스 중심 상품 구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밖에, 피부과 등 뷰티 메디컬 업종은 강남역, 명동, 홍대 상권에서 상층부로도 입차 수요가 확산되며, 상권 내 공실 해소에 기여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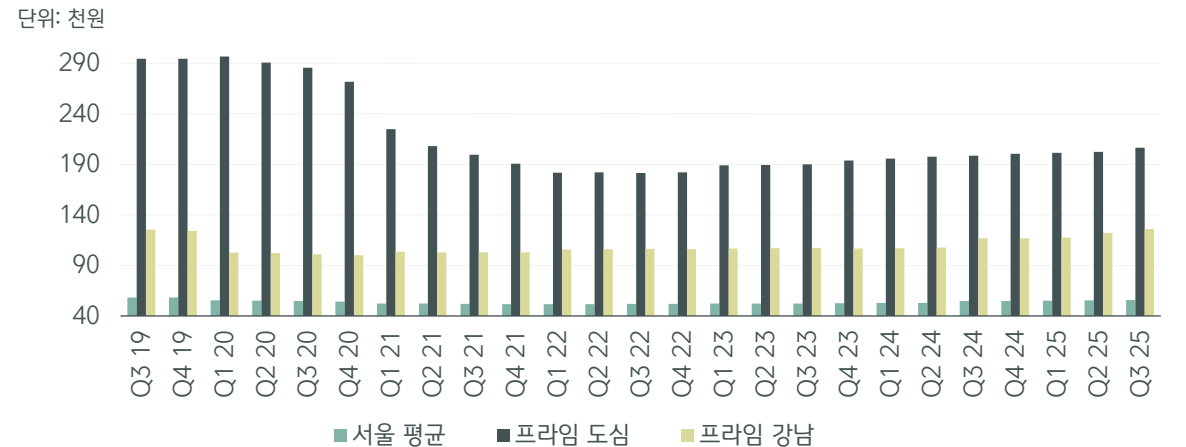
이러한 리테일러의 확장세에 힘입어 주요 가두상권은 4분기 강남·성수·한남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며 견조한 입차 수요를 기반으로 임대료 성장세가 관찰됐다. 강남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금년 3분기에 공실률 5%대에 진입했으며,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다이소 및 롤루레몬 등 대형 브랜드의 재진입 및 신규 오픈이 이어지며 유동인구 기반의 흡수력이 재확인됐다. 성수는 여전히 높은 입차 수요를 바탕으로 켈빈클라인, ABD마트 등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 오픈이 이어지며 핵심 상권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FIGURE 2: 리테일 판매액 증감률 및 외래방한객 입국자 수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FIGURE 3: 리테일 임대료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Note: 중대형 상가 기준

물류

2025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시장의 신규 공급량은 278,361㎡를 기록하면서, 2025년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1,043,381㎡로 집계되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었던 과잉 공급 해소와 함께 수급 균형이 안정을 찾아가는 유의미한 전환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번 분기에는 총 5개의 물류센터가 안성을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공급 면적의 92%가 상온으로 집계되면서 저온 공급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시흥의 시화 MTV 복합 물류센터(88,440㎡), 안성 CDC 물류센터(41,474㎡), 켄달스퀘어 일죽 로지스틱스파크 D블록(70,842㎡) 및 E블록(35,740㎡) 등이 금번 분기 신규 공급 자산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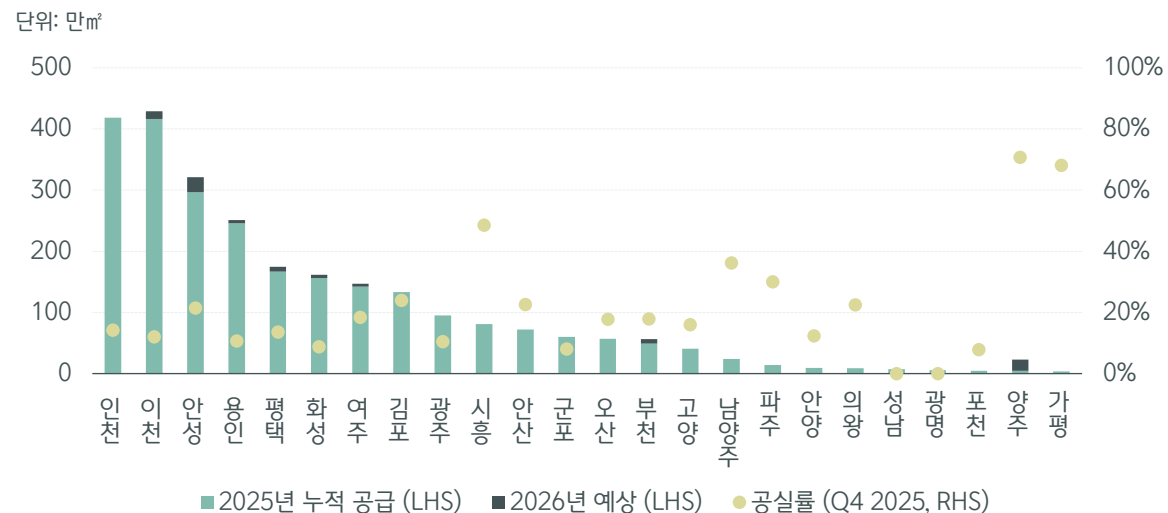
금번 분기 신규 임대차 활동은 인천, 안성, 여주 등 시장에서 추가 수요를 흡수하며 활발히 전개됐다. 인천에서는 쿠팡이 상온 및 저온 임차 면적을 확장하며 권역 내 이커머스의 비중을 확대했고, 안성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PL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거점 확보 수요가 이어졌다. 여주에서는 한진이 2025년 2분기 준공된 삼군리 물류센터 전체 면적(43,400㎡)을 임차하는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PL 수요가 견고하게 관찰됐다. 한편, 금번 분기 공급된 안성 CDC 물류센터는 롯데웰푸드가 전체 면적을 20년 장기 책임 임차하는 BTS(Build-to-Suit) 방식으로 개발된 자산으로, 저온 면적은 아이스크림 전용 중앙물류센터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및 3PL 업종이 수도권 물류 수요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CJ, G마켓·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플랫폼 및 3PL 간 협업 확대로 신규 물류센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동시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소규모·노후 자산에서 대형·고스펙 자산으로 이전 및 통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넥센타이어는 기존 소규모 노후 자산에서 시흥 소재 프라임급 자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급 감소세와 대형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며, 국내 임차인들이 중장기 물류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공급 감소와 함께 대형 공실 자산의 해소가 진행되면서 2025년 말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시장의 공실률은 17%로 집계되었으며, 상온과 저온 공실률은 각각 10%, 36%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상반기 대비 여주(-17%p), 김포(-11%p), 시흥(-11%p) 등에서 전체 공실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했는데, 이는 기존 전체 공실 자산에 이커머스 및 3PL 기업이 전체 임차 형태로 입주하면서 공실 해소가 가속화된 영향이다. 김포의 경우 신규 권역인 양촌읍 일대 지역에서 임차가 점진적으로 확보되며 공실률이 크게 개선됐으며, 2024년 이후 신규 공급이 집중되며 높은 공실이 관찰되어 온 시흥은 신규·대형 프라임급 자산 중심으로 임차가 진행되며 하반기 공실 하락이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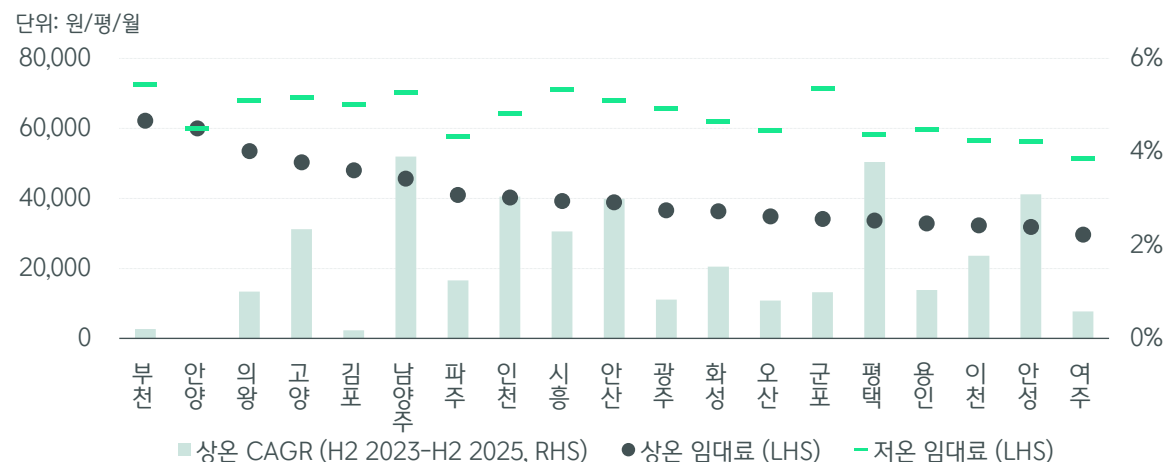
임대료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수도권 A급 상온 물류센터 임대료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2.4%로 집계되었으며, 권역별로는 인천이 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 감소 및 자산 양극화가 맞물리는 가운데,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임차 경쟁이 심화될 경우 향후 무상 임대 기간 등 임대 조건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FIGURE 4: 수도권 A급 물류 공급량 및 공실률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FIGURE 5: 수도권 A급 물류 임대료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투자

2025년 4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8.6% 증가한 8조 8,80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2025년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3.7조원으로 작년 대비 53%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차입금리와 수익률(Cap Rate) 간의 역마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현 금리 수준에 대한 우려보다 2025년 한 해 추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투자 의사 결정에 적극 반영되면서, 그간 지연되었던 대규모 자산 매각과 선매입 및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5조 5,921억원으로 전체 거래의 63%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이 중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거래만 14건(약 5.3조원)에 달했으며, 3대 권역 뿐만 아니라 분당, 문정 등 기타 업무 지구 전반에서 활발한 손바뀜이 관찰됐다. 이 중 도심권역의 시그니처타워가 약 1조 346억원에 거래되며 금번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분당 두산타워, 흥국생명빌딩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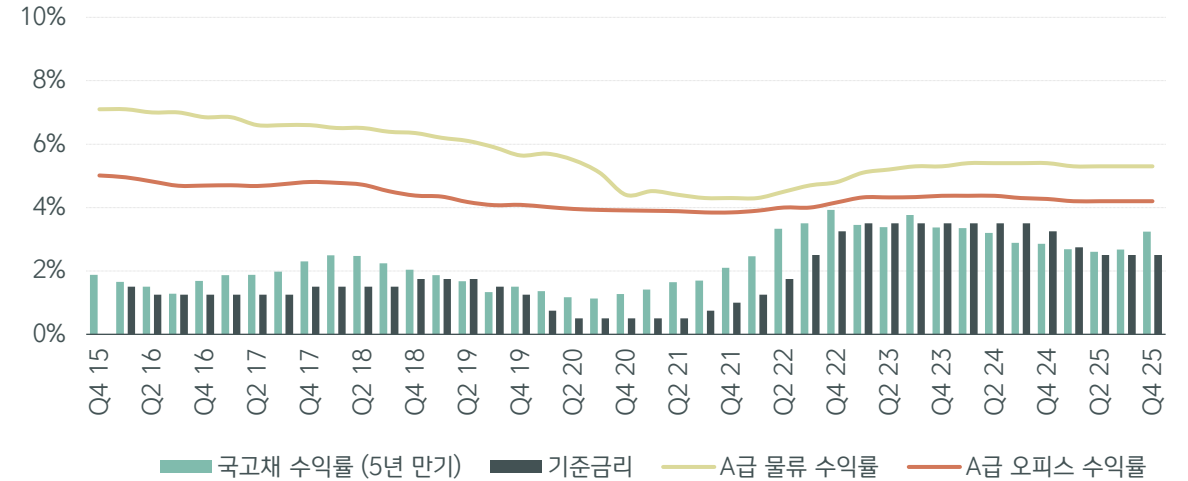
한편, 2025년은 특히 전략적 투자자(SI)의 오피스 매입 활동이 두드러지며 전체 거래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4분기에는 실사용 목적에 기반한 LX그룹의 LG광화문빌딩 매입, 머니투데이의 프리미어플레이스 매입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SI가 참여한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8조원을 상회하며, 연간 전체 오피스 거래 규모의 1/3 수준을 차지했다. 이러한 SI 주도의 매수세는 자산 선점 의지와 맞물려 향후 오피스 시장의 거래 규모 및 자산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류 시장 투자 규모는 약 2조 1,62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 가량 가파르게 증가했다. 크리에이트 자산운용이 전 분기 화성 제기리 물류센터 매입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청라로지스틱스센터를 1조 300억원에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와이드크릭자산운용은 국내외 자본을 결합해 로지스밸리 안산을, 코람코 자산운용은 해외 자금을 활용해 로지스포인트 여주를 각각 인수 완료했다. 안정화된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외국계 자본의 공격적인 매입 활동이 이어진 가운데, 하반기부터 국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다시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물류 시장의 우량 자산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 부문에서는 태광그룹(태광제1호리츠)이 2,542억원에 인수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과 신세계그룹의 포포인트 바이 웨라톤 서울 명동 매입이 주요 거래로 확인됐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자회사를 통한 리츠 설립을 통해 추가 호텔 자산을 편입하는 계획 등 자산 유동화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리테일 시장의 경우 강남, 성수, 홍대 등 핵심 가두 상권을 중심으로 법안 간의 제한적인 거래가 이어졌다.

4분기 서울 A급 오피스 및 수도권 A급 물류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4.2%, 5.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통화정책의 종료 시사 하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조달 금리의 일부 상승과 맞물려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오피스, 물류, 국고채 수익률 및 기준금리 동향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TABLE 2: 2025년 4분기 주요 매매 사례

분류	자산명	매매가 (단위: 억원)	매수자	매도자
오피스	시그니처타워	10,346	KB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오피스	분당두산타워	7,900	코람코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오피스	삼성동빌딩	3,507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물류	청라 로지스틱스 센터	10,300	크리에이트자산운용	브룩필드자산운용
물류	로지스밸리 안산	5,123	와이드크릭자산운용	CBRE IM
물류	로지스포인트 여주	1,900	코람코자산운용	포스코이앤씨

Source: CBRE Research, Q4 2025

Survey Criteria

Office

- A급 오피스: 서울 주요 3대 업무 권역 (도심, 강남, 여의도) 소재 연면적 33,000㎡ 이상의 자산
- 그 외 입지, 준공연도, 자산품질, 임차인, 임대료 등 정량적 및 정성적 요소 함께 고려

권역	소재지	자산 개수	평균 연면적 (㎡)	평균 준공연도
도심	종로구, 중구	53	70,799	2004
강남	강남구, 서초구	38	69,147	2004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88,311	2006

- 실질임대료: 명목임대료에서 자산별 무상임대기간을 반영하여 산출

Retail

- 소매판매액: 통계청 데이터 기준, 승용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
- 온라인 매출: 온라인쇼핑 판매액에서 온라인 서비스 매출을 제외한 금액

Research Contacts

Claire Choi

Head of Research
+82 2 2170 6118
Claire.choi@cbre.com

Simon Yoo

Associate Director
+82 2 2170 6163
Simon.yoo@cbre.com

Rachel Shin

Analyst
+82 2 2170 5800
Rachel.shin@cbre.com

Logistics

- A급 물류센터: 서울 수도권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연면적 33,000㎡ 이상의 자산
- 그 외 입지, 접근성, 층고, 임차인, 임대료 등 정량적 및 정성적 요소 함께 고려

권역 개수	자산 개수	평균 연면적 (㎡)	평균 준공연도
24개	327개	72,207	2020

- 조사 시기: 분기별 (공급) 및 반기별 (공실률, 임대료, 및 임차인) 전수 조사 실시

Investment

- 투자 규모: 서울 주요 3대 권역 (도심, 강남, 여의도) 및 분당 권역 오피스, 리테일 및 호텔 자산과 수도권 소재 물류 자산 (물류센터 및 공장) 기준 매각가 100억 이상의 거래 사례를 취합
- 거래 반영 시점: 등기부등본 접수일, 세어달의 경우 별도 확인 후 포함
- 오피스 수익률 (Cap Rate) 산정 방식: NOI 기준으로 산출, 그 외 실제 거래 사례, 진행중인 거래 동향, 금리, 경기 등 주요 변수와 매입·매각팀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 반영

© Copyright 2026. All rights reserved.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in good faith, based on CBRE's current anecdotal and evidence based views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 Although CBRE believes its views reflect market conditions on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they are subject to significant uncertainties and contingencies, many of which are beyond CBRE's control. In addition, many of CBRE's views are opinion and/or projections based on CBRE's subjective analyses of current market circumstances. Other firms may have different opinions, projections and analyses, and actual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may cause CBRE's current views to later be incorrect. CBRE has no obligation to update its views herein if its opinions, projections, analyses or market circumstances later change.

Nothing in this report should be construed as an indicator of the future performance of CBRE's securities or of the performance of any other company's securities. You should not purchase or sell securities—of CBRE or any other company—based on the views herein. CBRE disclaims all liability for securities purchased or sold based on information herein, and by viewing this report, you waive all claims against CBRE as well as against CBRE's affiliate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dvisers and representatives arising out of the accuracy, completeness, adequacy or your use of the information herein.

